

탁류의 도시,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에서

김현숙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내항의 부전교



내항의 부전교



구 군산세관



구 조선은행과 부두변 참고시설들

군산의 향은 독특하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하고, 메케하면서도 상쾌하다. 내항에 가까워질수록 그 향은 진해져 가고, 그 향에 취할 때쯤이면 근대의 애환이 담뱃 담긴 꾀보선창의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군산은 1899년 일본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 개항할 당시만 해도 150여 호에 500여 명이 거주하던 한적한 어촌이었다. 하지만 금강과 만경강 유역의 넓은 곡창지대를 배경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창(세금으로 거둔 곡식의 보관창고)이 위치하던 때문인지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 군산은 이전부터 제법 알려진 곳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군산은 개항과 더불어 현재의 영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57만 2,000㎡의 각국 공동조계지가 설정되면서 격자형 가로망체계의 근대 도시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 1907년 군산항이 축조되고 전주~군산 간 전국 최초의 포장도로와 익산~군산 간 철도가 건설되면서 미국의 집적이 용이해진 까닭에 연간 200만 석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수출량 기준으로 부산에 이어 2위의 항구 도시로 성장하였다. 지금은 뜬다리(부전교) 부두를 등지고 붉은 벽돌과 화강암으로 건축된 군산세관을 시작으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 구 미즈상사, 용도전환 된 몇몇의 창고가 남아 있을 뿐이지만 그 흔적을 찾아보기에 충분하다.



히로쓰 가옥



히로쓰 가옥



일본식 주택



거리에서 맞닥뜨리는 일본식 주택

가로 곳곳에서 만나는 근대도시의 경관

미곡항 도시로의 성장에 따라 미곡취인소(미두장), 정미업, 양조업, 식료품업, 금융업, 유통업도 발전하였으며 인구규모도 급증하여 1935년에는 4만 1,698명(일본인 9,400명)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인의 급증은 영화동 조계지에서 월명동·신흥동으로 연계된 월명공원을 경계로 한 주거지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관리·지주·상인 등 부유층의 집주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대표적 주택은 1925년 일본인 포목상 히로쓰(広津)가 건립한 가옥이다. 일본 무가(武家)의 주택양식인 목조 2층 주택으로 건축재료 전체를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

물과 정원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영화 <타짜>나 <장군의 아들> 등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히로쓰 가옥이나 윤여삼 가옥과 같이 뛰어난 건축이 아니더라도 가로 곳곳에서 맞닥뜨리는 일본식 주택이 정겹고도 애달프게 눈길을 사로잡는다.

군산 내항 일대는 광복과 더불어 급격히 쇠퇴한다. 일본과의 수출입 기반이 무너지면서 항구 기능은 장항을 연결하는 연락선과 어선에 넘겨졌다. 상업·업무시설의 미려한 건축물은 식민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용도전환되거나 철거되었으며, 적산가옥(敵産家屋)으로 분류된 주택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일식주택에 적합



공가·폐가로 전락한 아름다운 주택들



한 관리방안이 부재한 탓에 노후화되어 갔다. 이 독특한 근대도시의 역사경관은 가끔 영화에 등장하여 햇빛 외에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을의 세트장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배경으로 활용되었다.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 마스터플랜 수립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자료를 정비하고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부터다. 도시의 형성과 성장, 변화와 쇠퇴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아픈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 대신 역사적 사실로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던 2001년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의 개화기부터 광복 전후기를 전통과 현대의 가교기로 인식하고 이 시기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보존활동이 시작되었다. 군산시는 산재한 근대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쇠퇴한 원도심의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근대건

축물의 조사를 통해 구 군산세관을 도지정기념물로, 히로쓰 가옥을 비롯해 구 조선은행과 구 나가사키 18은행 등 9곳을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등록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화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내항 주변과 영화동·월명동 일대의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군산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목적은 원도심과 내항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근대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해 근대역사경관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에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근대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및 복원 계획, 근대역사문화 경관의 회복 계획, 지역 재생을 위한 근대역사문화 유산의 활용계획 등이다.

계획대상지는 문화벨트지구와 역사경관지구로 구분되었다. 유통업무의 기능을 담당했던 문화벨트지구는 과거의 건물을 보수·복원하고 새로운 기능 부여함으로써 양식의 재현과 복원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문화벨트지구 및 역사경관지구의 위치도



역사경관지구 내의 일본식 건축물 분포도

주요 시설물의 활용 방안으로는 우선 규모와 건축적 가치에 있어 군산 근대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경우 일제강점기 민족경제수탈사의 기억 재현을 목표로, 근대산업역사 박물관이자 전시기획에 쓰기 위해 건축의 원형 복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은 복합문화갤러리의 기능과 금고시설을 보수·복원한 곳에 경제수탈의 기록을 전시함으로써 이중적 전시효과를 도모하였다. 또 미곡저장고였던 대한통운 창고는 규모의 특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형 창고 공연장으로 계획되었다. 이 밖에 구 미즈상사는 군산시립박물관의 부속동으로 기능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사업과정에서 나가사키 18은행에 인접 이축시킴으로써 블록단위 문화벨트지구의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역사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역사경관정비를 도모하여 원도심의 경제적 기반을 재구축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사경관지구가 영화동·월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면적이므로 초기 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벨트지구와 양단을 형

성하고 있는 2블록을 선정하여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우선정비구역은 일식근대건축물이 70% 이상으로 최고 분포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블록이 최초로 개발된 1930년에 건립된 주택 32동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이곳의 개개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기초로 원형의 가치가 인정되는 목조건축물 23동은 덧대기와 증축부 등을 제거하고 보수·복원하여 원형 회복을 도모하였다. 가로변에 입지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활용도가 높으나 원형 훼손 정도가 심한 4동은 일제강점기 주택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민박으로의 개축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축되는 건축물의 보다 나은 입면구성을 위해 의장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특성은 다양한 일식 주거건축양식이 군산의 기후 등에 적응해 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시기에 축조된 군산의 대표적 주택의 입면특징을 분석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양호한 가로경관 및 건축자산의 축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블록의 내부에서 붕괴가 진행되거나 1970년대 이후에 건립된 보존가치가 낮고 구조상태가 불량한 조적조 부속 건축물은 철거하



문화벨트지구 대표적 건축물의 정비 전·후



월명성당권역 조감도



월명성당권역 평면도



우선정비권역 중 월명성당권역의 정비 전·후

여 중정형 소공원이나 쉼터로 조성하였다. 특히 민박시설과 연계된 소공원 부분은 다정(茶庭)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개축된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데크에 걸터앉은 시점(視點)에 맞춘 조경계획이 이루어졌다.

근대문화유산, 역사문화자원으로 재탄생

이 계획으로 전면폭 5m×깊이 20m의 장방형 필지의 건축방식인 장옥(長屋:나가야)의 특성과 블록의 공간적 틀은 유지하면서 필지분할에 의해 맹지 상태로 남아 있는 후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공간이 확충되었으며, 시민에 의한 문화활동을 일으킴으로써 역사경관지구 전체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폭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군산시는 개항신도시, 미곡수탈의 흔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여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이를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 역사문화자원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2013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받았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굽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군산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 대해 갖는 연민, 조금은 특별한 유대감의 형성과 자신감의 회복, 점차 증가해 가는 관광객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 다양한 형태로 결성되어 지역발전을 논하고 있는 각종 협의회, 지역 예술단체의 동참 등의 다양한 성과가 쇠퇴한 원도심 재생에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또 그렇게 되길 빌어본다.